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은 지난해 6월 캄보디아 시엠립에 위치한 고아원에 방문,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일면 스님은 이날 방문이 물질적 지원을 넘어 캄보디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원했다.

“꺾인 꽃망울 다시 피우는 자비 등불 돼 주세요”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으로 물들다

② 일면 스님의 캄보디아 후원 권선문

범죄 그늘에 멈춰버린 구호 손길
무너진 배움터에 거리 나선 아이들
생명나눔·현대불교, 3월 현지 방문
교육·의료·생계 지원…정부 협약도
동체대비 실천 모연 불사 동참하길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는 차마 마르지 않는 눈물의 시간으로 마음의 추위를 견디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 범죄 집단의 불법 행위로 인해 캄보디아 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민간 차원의 후원과 교류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위험하다” “도와줘도 소용없다”는 말들이 떠돌며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향하던 손길이 멈춰섰습니다.

시엠립 외곽의 가난한 마을에서는 학교 운영비가 부족해 교사들이 떠나고 교실은 텅 빈 채 먼지만 쌓여 가고 있습니다. 교복 대신 낡은 옷을 입은 아이들은 책 대신 노동의 도구를 들고 거리로 나섭니다. 연필을 쥐어야 할 손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교실에서 꿈을 말해야 할 입이 생계를 걱정합니다.

크게 보면 이 현실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기(緣起)의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입니다. 무고한 생명이 타인의 죄업으로 고통받는 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방관이요, 또 다른 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지난해 6월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불교계 국제구호 네트워크와 협력해 지역 주민에게 25억원 상당 의료물품과 각종 학용품, 그리고 한마음선원에서 지원한 3000만원 상당 EM친환경 생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또 학교에 노트북을 기증하며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정부 운영 고아원에는 태권도복을 전달하며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려 줬고, 고난도 함께 이겨 내겠다는 약속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다시 시엠립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이번 방문은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끊어진 희망의 다리를 다시 놓아야 하는 절박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우리는 시엠립 주정부와 공식 협약을 맺고 꾸준한 의료물품 및 생필품 지원을 이어 갈 것을 약속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의료지원 체계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불자의 근본입니다. 자비에는 국경이 없고, 생명의 가치는 피부색과 언어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모금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불사(佛事)’이며 상처 입은 국제 관계를 회복하는 화합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보내 주시는 소중한 정재(淨財)는 다음과 같이 쓰일 것입니다.

첫째, 교육의 맥을 다시 잇겠습니다.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교복·책가방·학용품을 전달해 다시 교실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둘째, 생존의 기본권을 지키겠습니다. 굶주림에 놓인 가정에 쌀과 식료품을 지원하고 위생이 열악한 마을에 식수와 의약품을 보급하겠습니다.

셋째, 신뢰와 화합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범죄로 얼룩진 인식을 민간 차원의 진정성 있는 나눔으로 씻어 내겠습니다. 편견의 자리에 이해를, 증오의 자리에 연민을 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불교가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힘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 사람, 천 사람의 원력은 세상을 밝히고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등을 돌린다면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내민다면 아이들은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붉은 흙먼지 속에서도 아이들이 절망 대신 희망을, 굶주림 대신 배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범죄에 대한 분노가 무고한 생명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는 불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 줄 수 있는 당당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모연에 동참하는 모든 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 올리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어린 꽃들이 다시 활짝 피어나 희망의 꽃망울을 맺을 그날까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자비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 거룩한 불사에 함께해 주십시오.

생명나눔·현대불교 캄보디아 취약계층 지원

3월 18~23일, 시엠립·삼라옹 방문
지역 주민에 쌀·생수·교복 등 지원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와 현대불교신문(대표 한명우)이 3월 18~23일 캄보디아 시엠립과 삼라옹 일대에서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구호 활동을 펼친다.

첫 번째 기증식은 3월 19일 오전 9시, 시엠립 소재 쁘레앙 뜨루엉 사찰(Preash Angk Trong Pagoda)에서 열린다. 이날 사찰과 주민들을 위해 쌀 10kg 400포(총 4000kg), 생수 700팩, 라면 200박스가 전달된다. 학생들에게는 교복과 학용품 150세트가 지원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리엉다이 초등학교(Leang Dia Primary School)에서 두 번째 기증식이 열린다. 사찰에 쌀 50kg 20포(총 1000kg), 생수 300팩, 라면 100박스가 전달되며 학생들에게는 교복과 학용품 450세트를 지원한다.

3월 20일 오후 2시에는 삼라옹 지역 뽀디봉 초·중학교 및 공예학교에서 세 번째 기증행사가 이어진다. 마을 주민을 위해 쌀 50kg 20포(1000kg), 생수 300팩, 라면 100박스가 전달된다. 학교 환경 개선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시엠립 주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물품과 생필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 갈 방침이다. 또 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 아동들의 학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면 스님은 “이번 기증행사를 통해 교육과 생계, 공동체 회복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현지 주민과 학생들이 다시 꿈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구호 활동은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남양주 봉선사, 한마음선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리더스포럼, 나누며하나되기 등이 후원한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캄보디아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사진은 일면 스님과 한명우 대표가 지난해 6월 캄보디아에서 MOU를 맺고 있는 모습.

지구촌 생명살림 공동 캠페인 共生

세계는 한 꽃송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세요!!!

어른들의 분쟁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깨끗한 물 한 잔, 마음 놓고 뛰어놀 운동장, 그리고 내일의 꿈을 적어 내려갈 공책 한 권이 이 아이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총성 대신 노래가 퍼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의 일상 회복을 위해 여러분의 자비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피난민과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이렇게 사용됩니다.

긴급 구호
피난민 생필품, 영양식, 의료품 지원

교육 지원
파손된 학교 보수 및 교복, 가방, 학용품

후원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현지방문
2026년 3월 18일(수)~23일(월)

아이들이 다시
연필을 잡을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더해주세요!

후원 동참 문의
02)2004-8214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나누며 하나되기 로터스월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